





종합/사회 경제 IT/과학 스포츠 라이프 연예 문화 사실/컬럼

· IT/일반 · 과학/신기술 · 신제품

Los Angeles | New York | Washington DC | San Francisco | Chicago | Seattle | Atlanta | Texas | Hawaii | Vancouver |

뉴스홈 > IT/일반

 큰크게  작게  기사프린트  기사이메일

## 이나폴리에'로봇소방수'등장

입력일자:2007-06-27

터널내 위험물질, 공장 화재 등에 활용 가능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처음으로 '로봇 소방수'가 등장했다.

'로보갓'(Robogot)으로 불리는 이 로봇 소방수는 자동차 도로 및 철로의 터널 구간내 화재를 진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더러, 정유 공장이나 화학 공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7일 전했다.

과학자인 도메니코 피아티는 1999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몽블랑 터널내 트럭 화재로 39명이 숨졌던 사건에서 착상을 얻어 로봇 소방수를 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발명하는데 200만 유로(25억원)의 사재를 털었다.

그는 "발명 목적은 소방수들이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곳들에 접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로보갓은 26일 나폴리에서 진행된 터널 화재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화재를 성공적으로 불을 껐다.

로보갓은 터널 천장 밑에 특별히 제작된 철로를 달린 뒤, 열감지 카메라들을 활용해 불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곳들을 찾아 고압의 물을 발사했다.

피아티에 따르면, 가장 큰 로보갓은 시속 80km의 속력을 지녔으며, 그보다 작은 모델은 시속 20km 정도로 달린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끝)

